

지역화폐 '온통대전' 연계 정책 28건 발굴

시민참여시 마일리지로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전시가 온통 대전과 연계 시민주들이 정책사업을 더욱 쉽고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사업 28건을 발굴해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사업은 대전지역 화폐 온통 대전에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발굴된 사업은 △기준 현금·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던 예산을 온통 대전으로 지급하는 정책 수당 사업 16건 △시민참여형 마일리지 연계 사업 5건 △온통대전물 등 플랫폼 활용 사업 7건 등이다.

특히 시는 발굴된 사업은 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필요하면 예산을 별도 확보하는 등 조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책사업 제안을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지속해서 온통 대전 연계정책 사업을 발굴해 발전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고현석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 대전을 지역 대표 브랜드화하여 상생 플랫폼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100년 넘은 "세종 복숭아 맛 아실까?"

908년 '권업모범장' 들어선 후 재배 최적지 확인 알칼리성 복숭아 단백질·아미노산 등 종합영양제 '세종 복숭아' 충남서 유일 '옴Q' 마크 획득

충청도 먹거리

"100년 넘은 '세종 복숭아맛' 아실까?" 세종은 복숭아로 유명하다. 한마디로 '복숭아 고지'라고 할 수 있다. 매년 봄이 되면 붉은 색의 아름다운 복숭아꽃이 만개하면서 봄이 왔음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이기도 하다.

복숭아꽃(복사꽃)의 아름다운 매력에 흠뻑 빠진 시민들이 꽃구경에 장사진을 이루고 전국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동호인들이 대거 몰려든다.

복숭아꽃은 꽃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진으로 담아내는 데 복숭아꽃만큼 좋은 피사체가 없기 때문이다.

시와 노랫말에 '복사꽃'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복사꽃의 아름다움을 익히 알 수가 있고 그 화려함은 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세종 복숭아는 1908년 농촌진흥청 전신인 '권업모범장' 과수시험포가 세종시에 설치되면서 복숭아재배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때부터

재배가 시작돼 세종 복숭아는 100년 넘은 역사를 자랑한다.

세종 복숭아는 황토질의 알맞은 토양 산도와 충분한 일조량으로 기후조건이 복숭아 재배에 적지이며 과육이 연하고 향기가 좋으며 당도가 높다.

과육이 연하고 맛과 향, 빛깔이 좋아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옴Q' 마크를 획득했다. 세종과 충남 생산량 50%를 차지한다.

알칼리성 식품인 복숭아는 다량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 식품으로 좋다.

또한 당분, 유기산, 비타민, 섬유소, 무기질 등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돼 '종합영양제'로 불린다. 배변을 촉진해 변비치료에도 효과와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세종의 복숭아는 574농가에서 재배 면적은 320ha에 이른다.

수확철만 되면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도로변에는 복숭아 노점 판매가 성황을 이룬다.

세종시는 매년 8월 초에 복숭아 축제가 열리는데 세종에서는 가장 큰 축제



100년째 재배해온 세종 조치원 복숭아. 2019년 세종조치원 복숭아 축제 당시 전시된 복숭아. 사진=세종시

다.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기차를 이용해 복숭아 축제에 참여하기도 한다. 축제는 복숭아 품평회는 물론 체험농장에서 복숭아를 수확할 수도 있다.

복숭아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는 복숭아 자체도 과즙이 많고 맛 또한 좋지만, 복숭아 요거트, 화채 등으로 선보인다.

이태주 세종조치원복숭아영농조합 대표(55)는 "110년 역사의 세종조치원 복숭아는 일교차가 크고 토양이 황토

가 적당히 잘 섞여서 복숭아 재배하기에 적당하고 당도가 높아 맛이 좋다"며 "지금은 고요품종은 남아 있기는 하나 많이 없어졌다. 과거 '홍백'이 유명했으나 지금은 대체품종인 '왕홍백', '천종도', '장택' 등 30여 가지가 재배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어 "세종조치원 복숭아는 7월 중순 이후 수확을 시작해 8월까지 70%가 출하된다. 만생종인 황도는 9월에 출하된

다"고 전했다. 20년 간 복숭아 농사를 지은 이 대표는 909㎡(3000평) 땅에서 연간 10톤을 생산해 6000여 만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세종에는 배 418농가에서 297ha, 수박 92농가 76ha, 딸기 112농가에서 40ha를 재배하는 등 농·특산물이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김정원 기자

동해선 철도사업 역사 신설 '용도지역 변경' 가결

"미래도시 천안 밀그림 그리고 코로나 청정도시 천안-경제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천안사랑카드 2천억 확대 골목상권 지원"

[인터뷰]

박상돈 천안시장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신축년(辛丑年) 새해 키워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로 압축된다.

박 시장은 최근 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2021년 천안시정 방향에 대해 "제일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미래도시 천안의 밀그림을 확실히 그려 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기필코 백신 접종

과 차단방역 등을 통해 '코로나19 청정도시 천안'을 만들어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박 시장은 "먼저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회복의 실마리를 풀어가겠다"면서 "지난해 12월 빙그레 투자유치로 621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천안경제의 새 도약을 이끌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침체된 천안경제회복을 위해 10개의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밝혔다.

"2024년까지 527만㎡의 10개 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 기반을 확충하고 2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박 시장은 "천안 역세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833억 원을 들여 1만 7639㎡의 복합연구 및 창업공간을 조성하겠다. 또한 5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해 '창업의 요람', '스타트업의 도시 천안'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되도록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를 비롯해 오룡지구·남산지구·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천안의 심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으며 자율주행과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선도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KTX 천안아산 역세권연구개발 집적지구 조성,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등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으로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 혁신 플랫폼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판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홍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아울러 기업 스마트 혁신지원단 운영,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청년 일자리 지원 플랫폼 구축,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청년·중장년·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및 특별보증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고 천안사랑카드를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그는 흥과 여유가 넘치는 고품격 문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천안시

화도시, 천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문화는 도시의 경쟁력이자 자부심이다. 천안의 매력과 잠재력을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시켜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 관광도시 천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로 K-아트 지역박람회, 흥타령 춤추제의 세계화, 전국무용제 개최, 천안문화예술크터와 태조 왕건 역사기념공원 조성, 용연저수지와 흑성산을 연계한 관광 개발하겠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정원 기자

특수여객차고지 규제 완화 촉구

특수여객(장의차) '차고지 문제' 심각, 국토부 이제는 답할 때입니다.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연간 육천만원 이상 비용 절감 효과)하고 불법 발생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2. 특수여객자동차 보유 차고지의 면적기준 비교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우로서 그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에 설치할 수 있는 운송부대시설 중 점검·정비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로 맞닿은 시·군 안의 점검·정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에는 차고는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다.



배인욱 회장

임원명단

연번	조합명	이사장
1	경북조합	배인욱(회장)
2	서울조합	정관욱(부회장)
3	경남조합	이기보(감사)
4	부산조합	정한수 이사
5	대구조합	박재문 이사
6	대전조합	조창식 이사
7	광주조합	박희섭 이사
8	울산조합	김다운 이사
9	강원조합	박홍식 이사
10	충남조합	박종덕 이사
11	충북조합	김학범 이사
12	전북조합	채병현 이사

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배인욱 회장 외 이사장 일동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9층 (신천동) 전화 (02)415-2201~2 팩스 (02)414-4471

